

“우리 딸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는 넋을 잃었다

아내와 자녀를 한꺼번에 잃고 10년 간 동고동락 친구 떠나 보내기도 “방콕 간다고 들며 있었는데…가족 보내고 제 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눈시울을 적시게 하고 있다.

임신 3주차 임신부부터 승진을 앞둔 직장인, 친구, 모처럼 여행길에 참변을 당한 일가족 등 희생자들의 사연이 주변을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30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만난 광주시 남구에 사는 유족 A씨는 “우리 딸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라며 말 끝을 흐렸다.

둘째 임신 3주라는 산부인과 진단에 출산 전 마지막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딸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A씨는 “남은 아이가 6살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억울해 했다.

광주시 동구에 사는 조모(32)씨도 하루아침에 고모와 고모부, 사촌동생을 모두 잃었다.

조씨는 사촌동생과 연령대가 비슷해 막역한 사이였다고 회상했다. 고모 역시 평소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늘 밝고 선하셨던 분이었는데 조씨의 설명이다.

조씨는 “고모 회사에서 패키지 여행을 보내준다고 해서 가족여행 차 함께 태국 여행을 간 것”이라며 “사촌동생 SNS에는 가족들과 함께 떠난 방콕 여행의 행복한 순간이 담겨 있어 더욱 믿겨지지 않는다”고 흐느꼈다.

전북 고창에 사는 김모(53)씨도 이번 사고로 10년지기 막역한 의형제를 잃고 무안공항을 찾았다.

김씨는 “친구(희생자)는 금융계에 10년째 같이 종사하며 동고동락했던 사이”라면서 “사회에서 만

난 인연이지만 동네친구보다 형제처럼 지냈다”고 말했다.

김씨는 “초·중등생 자녀와 아내, 장모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변을 당했다. 장인 어른은 몸이 아파서 같이 여행 가지 못했다”며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제 정신으로 살 수 없어 텐트에서 실신해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내 친구 참 좋은 사람이었다. 내년에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서 더욱 안타깝다”고 고개를 저었다.

광주에서 전날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온 B씨도 사위와 고등학생 손자 둘을 잃고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B씨는 “처음으로 남자들이끼리만 떠나는 여행이라며 좋아했었다. 방콕간다고 한껏 들떠있던 모습이 기억난다”며 “딸은 여행을 가지 않아 사고를 피했지만 심각한 사위, 눈에 담기도 아까운 손자를 한순간에 잃어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B씨는 “추억이 담긴 핸드폰이라도 찾아서 어떤 기억을 안고 돌아왔는지 들여다보고 싶는데 핸드폰 찾는 건 꿈꿀 수도 없는 처지”라고 고개를 떨쳤다.

무안공항에서 밤을 꼬박 새운 C씨도 40대 조카와 친동생, 매제를 사고로 떠나 보낸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다.

C씨는 “가족들이 공항에 오지 말라고 극구만류했는데 현장에 와봐야할 것 같아 무거운 마음으로 전날 공항에 왔다”며 “결혼도 안하고 앞날이 장창한 우리 조카 어떡하나, 구호물품은 많지만 밥 먹을 정신이 없다”고 허공만 바라봤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30일 오후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들이 여객기 잔해를 바라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무안공항 1층에 분향소 설치 위령탑과 추모공원도 조성을”

유가족 대표단 언론 인터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위령탑과 추모공원 설치를 요구했다.

유가족 대표단은 3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표단은 무안국제공항 1층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신 유족대표는 “유가족의 의견을 모아 무안공항에서 5km 떨어진 스포츠센터보다 접근성이 좋은 무안공항 1층에 분향소를 설치해달라고 정부와 전남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위령탑과 추모공원 설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족들은 위령탑과 추모공원의 장소는 무안 공원

인근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제주항공 측과 일부 합의가 진행된 것이다. 일부 유족들이 장례를 먼저 치르길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한 집안의 가장이 숨져 홀로 살아가야 하는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 정확히 따져서 유족들에게 알려주고 합당한 보상과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언론브리핑과 유족브리핑을 통해 “장례비는 제주항공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협약서를 통해 서류로 남겨 유족들이 장례를 치른 후 원스톱 처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석 제주항공 본부장 역시 이날 유족들에게 고개 숙이며 “장례비 외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희생자 유족에 따뜻한 손길…구호품·자원봉사·선결제 ‘물결’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 이후 희생자 유가족이 머물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무안국제공항 1층에는 광주와 전남, 전국 각지에서 도착한 구호물품이 담긴 박스를 옮기는 손길로 분주했다.

광주시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 전남 자원봉사센터는 유가족들을 위해 물과 두유, 컵라면 등을 배부했고 나주시사랑커뮤니티, 사랑의열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도 이날 부스를 열고 굴과 바나나 등 과일과 박스 등 에너지 음료를 배부했다.

한국기독교연립봉사단은 공항 2층에서 어묵과 김밥 등을 나누며 “드시고 힘내세요”라고 힘을 북돋았다.

봉사단은 음식 외에도 공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유족들을 위해 수면양말과 비누, 핫팩, 칫솔·치약, 삼백약 등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나누기도 했다.

공항 내 편의점 세븐일레븐 본사에서는 ‘필요한 만큼 가져가주세요’라는 팻말과 함께 에너지바와 휴지, 컵라면 등을 갑판대에 내놓기도 했다.

개인적인 봉사도 이뤄졌다. 광주일보 독자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사)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 최선희 명예회장 등은 이날 사골 곰탕과 밥, 생수 등 200인분의 식사를 마련해 유가족들에게 제공했다. 최 대표는 “유가족들이 찬 바다에 주무시고 식사도 잘 못하고 있다고 해서 따뜻한 식사라도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안공항으로 달려갔

다”고 말했다.

‘흑백요리사’로 이름을 알린 안유성 명장도 김밥 200줄을 싸서 들고 공항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안씨는 “5·18 때 주먹밥을 만들었던 시민들처럼 심심일만의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며 곁에 있고 싶다”고 했다.

사고 소식을 공항을 찾은 유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물량은 넉넉하게 준비돼 부족함이 없었다.

탄핵시위로 빛을 발했던 ‘선결제 문화’가 무안공항에서도 이어졌다. 공항 내 카페 전시장에는 ‘봉사자 및 유가족은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 드시길 바랍니다 선결제 되셨어요’라는 종이가 붙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제주항공 사장, 참사 11시간만에 유가족에 등장 사죄 ‘분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1시간여만에 제주항공 사장 등이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비행기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하는 상황이라며 국토로 말을 아꼈다. 가족들은 제주항공 사장이 대기실에 모습을 드러내자 “왜 이제 왔느냐”, “우리 가족 살려내라”고 울분을 토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사장과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회장 등 관계자는 지난 29일 오후 7시 50분께 무안공항 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 대기실에서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사고가 발생한 오전 9시께부터 11시간이 지난 이후였다.

탑승객 가족들은 싸늘한 반응이었다. 탑승객 가족들은 “왜 이제 왔느냐. KTX 타면 두시간이면 올 거리 아니냐”며 “제주항공 관계자를 찾아

냈지만 한 명도 대응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가족들은 “살인이다”, “살려내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김 사장은 “제주항공 본사에서 250명이 도착해서 대기 중이며, 정부와 지자체와 조율해서 유족 한 분 한 분에게 직원들을 배치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